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이었지만 사실 연수기간동안 별로 실감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수업은 그룹수업 4시간, 1:1 4시간으로 총 8시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있는 수업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선생님들과 친해지니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룹 시간은 다른 모르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도 좋았지만 1:1 시간에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프리토킹을 하는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4주가 안 되는 시간동안 급하게 수업을 하다 보니 마지막엔 약간 쫓기듯이 공부했다는 점입니다. 1:1은 그럴 일이 별로 없었지만 토익 스피킹은 아예 따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조금 넉넉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Activity	우선 fun Friday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매주 간단하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액티비티였습니다. fun friday를 위해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양말 등을 샀던 것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조금 멀리 나가서 하는 체험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혼자서는 가지 못했거나 하지 못했을 체험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목요일에 다 같이 모여 하는 활동도 학생들과 안면을 트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도 너무 맑았고 연수 초반에 살짝 흐리고 비가 와서 액티비티에 영향이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바람도 시원해서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안전	가드 분들이 매일 순찰도 도시고 입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했을 때도 무섭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쪽으로 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는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바퀴나 개미가 나오기도 하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바로 바로 대처해주셔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세탁도 해주시니 편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외부식당(v) 기타() 점심은 학교식당, 저녁은 보통 밖에서 먹었지만 돈이 없거나 쉬고 싶은 날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맛있었지만 가끔 필리핀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맛도 괜찮았습니다.
교통	FB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엄청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나가고 싶은 사람에 비해 오는 fb나 택시가 너무 적어서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콜을 하면 가격이 더 비싸져서 도로까지 걸어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한국에서 환전	564,470	50달러 미리 환전
현지에서 환전 및 카드	130,061	기념품 및 외식에 쓸 돈이 부족해 추가로 더 환전/카드사용
합계	694,531=약 70만	

5. 출국 전 준비사항

100달러 짜리로 환전하기
수영복사기
여권 사본, e티켓 뽑기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들

-비자카드

-라면포트

-넉넉한 수건

-가서 사도 될 물건들이지만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더 편했을 것 같음

6. 본인 소감 및 평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공부도, 체험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8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수업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업도, 일과 후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액티비티도 모두 재미있었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같이 방을 쓰는 룸메 친구들을 비롯해, 함께 간 40명의 학생들 모두와 한 달 동안 너무 즐겁게 지냈습니다. 기숙사는 벌레가 많은 것 빼고는 지내는 데에 불편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마뱀도 볼 수 있었는데 나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도 매우 즐거웠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머물렀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교통수단(fb와 택시-트렁크같은 곳에도 앉아서 갈 수 있음)을 이용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필리핀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있었지만 대부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침 날씨도 굉장히 좋을 때라 수영도 많이 했습니다. 물가도 싸서 이것저것 많이 체험하고 맛 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도 맑아서 별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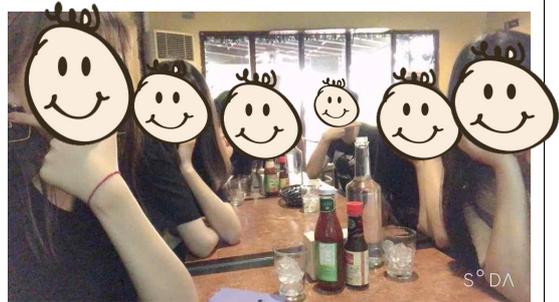
기숙사에 있는 수영장에서 다 같이 수영했습니다!



친해진 친구들과 라면 파티~



주말 액티비티로 리조트에 갔다 왔습니다.



음식들도 다 맛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그룹 친구들과 mmc쌤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던 수빅~!!